

신용카드 포인트몰 '힝포'

상품가격 시중보다 비싸

#1. 주부 이모(56)씨는 최근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열심히 긁은 H카드에 3만 포인트가 적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때마다 싶어 'H카드 M포인트몰'에 접속했다. 그런데 가격이 평소 다니던 대형마트보다 비쌌다. 차선책으로 카드사 제휴 가맹점인 의식업체에서 포인트를 사용할까도 생각했지만, "결제대금의 10%만 포인트로 쓸 수 있다"는 안내 글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포인트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이씨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M포인트몰에서 남은 포인트를 한 번에 소진했다.

#2. 대학원생 김모(30)씨는 얼마 전 H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닷컴에 접속하면 전액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는 공지글을 보고 평소 갖고 싶었던 블루투스 미니 스피커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가 2만9700원짜리 스피커를 4만455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가격에 구매하면 '호갱'이 되는 느낌이라 도저히 결제할 수 없었다. 포인트도 돈인데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처럼 신용카드 포인트 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회원이 현금처

리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과 사용처 등에 따라 일정액(최저 0.1% 이상)을 쌓는다.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보통 1포인트 당 1원으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제휴 가맹점과 쇼핑몰 물품구매, 세금과 공과금 납부, 마일리지 전환, 연회비와 SMS 문자서비스 결제, 캐시백 전환, 기부 등으로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단, H카드의 예외다.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H카드 M포인트몰, G마켓·CJ몰·신세계몰, 현대·기아 자동차 구매, 일상사용처 등으로 한정된다.

포인트 전액 사용처인 온라인쇼핑 제휴몰 롯데닷컴이나 H카드 기프트카드·상품권·연회비 결제 시 1포인트의 가치는 0.67원으로 떨어진다. 10만 원짜리 상품을 사려면 15만 포인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H카드 가입자는 소멸 시점이 임박한 포인트를 소진하려면 바가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실제 H카드 M포인트몰에서 인기리에 판매하는 '이마트' 전용상품 중 'A사 3점 두루마리 화장지(35mmx24롤)' 가격은 2만6800포인트다. '이마트 풀'에서 1만9900원(할인쿠폰·카드청구할인 미적용)에 판매 중인 동일 제품보다 무려 6900원 비싸다. 다른 카드사 쇼핑몰에서도 2만원에 판다.

M포인트몰에서 '할인 상품'이라며 판매하는 국내 유명 브랜드 홍삼 제

품 가격은 18만8100포인트다. 정가 19만8000원에서 9900원 할인된 가격이지만, 일반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17만5000원 대비 1만3100원 비싸다.

이 같은 상황은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몰에서도 비슷하나 H카드가 특히 심하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청구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방법으로 손해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H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는 유통업을 할 수 없으므로 유통점들과 제휴를 맺어 쇼핑몰을 운영한다"며 "어떤 상품은 수급 사정 등에 따라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는 반면, 재고가 많은 상품은 오픈마켓보다 더 싸게 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 포인트 결제가 가능한 롯데닷컴의 경우 5%밖에 포인트 결제가 안 되는 다른 오픈마켓보다 다양한 상품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더 많은 포인트를 사용해서라도 구매하는 것"이라며 "상품 가격이 비싸든, 싸든 결국 소비자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정수는 9310만장, 체크카드 발급정수는 1억1536만장이다. 국민 한 사람당 신용카드 1.8장, 체크카드 2.3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소비자 지급 결제 수단 비중은 신용카드 39.7%, 현금 36%, 체크·직불카드 14.1% 등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1조 5120억원, 체크카드 368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성주 기자



'원피스' 캐릭터 한눈에

연관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서 세븐일레븐 피규어 3탄 원피스

기부채납 절반까지 현금납부 허용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가로주택정비 대상 확대

앞으로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된다. 주택의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된다. 도시공원법상 녹지나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도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

/이성주 기자

국내개발 품사로 종자, 미국서 로열티 받는다

농촌진흥청은 18일 우리 기술로 개발한 품사 품종인 이탈리아 라이그라스(IRG) '그린팜'과 '코원어리'에 대해 미국과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앞으로 '그린팜'과 '코원어리' 품종을 제공하고, 농기술 실용화재단은 기술 마케팅을 (주)ABS 코리아는 미국 내 '그린팜'과 '코원어리'의 전용실시권(특허권 전용 사용)을 담당하게 된다.

로열티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이고, 계약물량은 835이며, 앞으로 미국 내 재배 면적은 2300ha~1만500ha 규모로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받게 될 로열티는 생산된 종자 10kg 당 216원으로, 2021년까지 1만 6000달러(184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단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품사 종자를 미국 외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그린팜(2010)'은 이모작용 극조생 일찍 자라서 빨리 수확 가능한 품종이다. 이 품종으로 수확기가 이전 조생종에 비해 10여 일 빨라 수확한 뒤 모내기까지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성주 기자

공영홍소핑, '우수여행상품전'

공영홍소핑이 정부·업계와 손잡고 국내 중소기업이 기획한 지역·농촌 여행 상품 알리기에 나선다.

공영홍소핑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여행업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국내 우수 여행지를 추천하는 '우수여행상품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표상품으로 ▲참원과 부산 국제시장 1박2일 ▲남도 명소(전주·순천·여수) 여행 1박2일 ▲청송 슬로푸드 한옥체험 1박2일 ▲곰배령 야생화 트레킹 1박2일 ▲제주 패키지 투어 2박3일 등이다.

이달 2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코레일관광개발과 공동으로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을 반영한다. 상품 가격은 정부 지원으로 대인 기준 3만원대다.

/이성주 기자

G마켓·옥션,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결제서비스 시행 협약

G마켓과 옥션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베이코리아는 보건복지부, BC카드와 18일 역삼동 이베이코리아 본사에서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결제 서비스' 시행과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김삼희 인구아동정책관과 BC카드 채종진 부사장, 이베이코리아의 김소정 전무 등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우처 결제 서비스'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에게 BC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한해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성주 기자

하이트진로, 아프리카시장 진출

하이트진로가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라크, 두바이 등 중동 수출에 이어 이번에는 아프리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진로소주 TV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광고하는 소주는 해외수출 전용 브랜드 '진로24'로 750ml 용량에 알코올 도수 24%로 현지에서는 고급술로 알려져 있다.

하이트진로는 우간다를 포함해 가나, 나이지리아, 모잠비크를 집중 사업국가로 선정했다. 집중사업국에서는 전문화된 유통사를 운영하고, TV 및 옥외광고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계획이다.

아프리카는 최근 해외투자가 증가, 중산층 인구 확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경제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성주 기자

창업 아이디어에서 기술중심으로 전환

정부, 육성혁신전략 발표

정부가 아이디어 창업 지원 중심에서 기술창업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전환한다.

중소기업청은 18일 기존 창업 지원 정책을 '창업 지원 확대'에서 '스타벤처 기업 육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창업기업 육성 정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창업 지원확대를 위한 지원 방식을 '씨뿌리기'에서 '글로벌 스타 벤처' 육성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상생 서포터즈 청년창업육성 등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삼는 창업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 등 정책 수단간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급 기술인력 창업 투자펀드 조성 ▲특화형 틈스(TIPS)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화형 틈스(TIPS)는 신산업 및 융복합 분야의 기술창업을 견인하기 위한 방향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틈스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밀한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해외지향형 창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을 활용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업을 별도로 선별해 사업화 전략, R&D, 글로벌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유망 창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실리콘밸리 현지에 글로벌 창업기업 전용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현지화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스라엘 정부의 IT 프로그램 운영 및 나스닥 상장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이스라엘 창업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낮은 아이디어 창업에 대한 지원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하이테크 창업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채움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채움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